

‘커리어하이’ 김하성, 끊임없는 노력 드디어 빛 발하다

생애 첫 30홈런-100타점 고지 ‘좋은 결과’
데뷔 2년차 2015년부터 주전으로 자리매김
올 시즌 뒤 포스팅시스템 통해 美진출 노력

키움 히어로즈 김하성(25)이 커리어하이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왜 항상 비슷한 성적을 낼까’를 고민하던 그가 해답을 찾은 셈이다. 김하성은 14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경기에서 3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올해 개인 두 번째 20(홈런)-20(도루)를 달성하기도 했던 김하성은 이날 6회 솔로포를 터뜨리며 시즌 30번째 홈런을 신고했다. 김하성이 한 시즌 30홈런을 터뜨린 건 올해가 처음이다. 종전 한 시즌 최다 홈런은 2017년 기록한 23개다. 이날 경기전까지 105타점을 기록 중이던 그는 생애 첫 30홈런-100타점 고지도 밟았다.

김하성은 “올 시즌을 앞두고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했다. 시즌 중에도 컨디션 관리 등에 신경을 쓰면서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분 좋다”고 말했다. 데뷔 2년 차였던 2015년 주전으로 자리 잡은 뒤 리그에서 손꼽는 유격수로 성장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았다. “매년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성적만 날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김하성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썼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개인 성적이 더 잘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더 나은 성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셈이다. 김하성은 올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

을 통해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올 시즌 그가 거두고 있는 좋은 성적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이미 현지에서는 김하성을 호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김하성은 “과분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몸을 낮추면서 “해외 진출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은 우리 팀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시즌에 임하고 있다. 아직 가을야구도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개인 성적이나 목표가 아닌 팀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시즌 전 우승후보로 꼽혔던 키움은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 5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2위 KT와 1게임 차밖에 나지 않아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는 요동칠 수 있다. 김하성은 “힘든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뽀뽀 문쳐서 이겨내자고 하고 있다. 주장인 김상수 형과 박병호 선배도 팀의 무게를 잘 잡아주신다. 프로 선수답게 좋은 플레이를 하자는 말들이 자극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 팀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계속 이기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눈을 빛냈다.



+출루율) 0.867을 기록한 뛰어난 파워히터였지만, 김하성은 콘택트 능력과 수비력, 전체적인 운동 능력에서 더 강한 타자”라고 평가했다.

MLB닷컴 “김하성, 강정호보다 콘택트·수비 좋아”

“텍사스·샌프란시스코 노릴 것”
김하성(25-키움 히어로즈)이 미국 메이저 리그(MLB)에서도 연일 주목받고 있다.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KBO리그 출신의 MLB 스타가 될 수 있다”며 김하성을 소개했다. 매체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김하성과 계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기회를 위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적었다. 김하성이 올 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에 도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하성은 2014년 2차 3라운드 29순위로 넥센(현 키움) 유니폼을 입고 2015년 팀의 주

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15일까지 통산 885경기에서 타율 0.296, 133홈런 573타점 132도루를 기록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 뛰는 그는 공격과 주루 등에서도 두루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개인 두 번째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고, 데뷔 첫 30홈런-100타점을 작성하기도 했다. MLB닷컴은 “김하성의 올 시즌 메이저리그 오디션은 놀라운 인상을 남겼다”면서 이번 시즌 활약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스카우트들은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를 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2루나 3루에서도 기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팀

이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한 매체는 영입에 관심을 보일 팀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LA 에인절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시카고 컵스 등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KBO리그 출신 타자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건 두 차례다. 2015년 강정호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했고, 2016년 박병호(키움)가 미네소타 트윈스와 사인했다. 둘 다 히어로즈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MLB닷컴은 “김하성은 종종 히어로즈의 주전 유격수로 전임자인 강정호와 비교된다. 강정호는 2016년 피츠버그에서 OPS(장타율

포항의 ‘K리그 고춧가루’...선두 울산에도 뿌려질까

‘동해안더비’ 라이벌...18일 맞대결
2위 전북, 광주 상대 선두 탈환 노력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주말 프로축구 K리그1이 돌아온다. 시선은 ‘고춧가루 부대’ 포항 스틸러스에 향한다. 포항은 18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선두 울산 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파이널 A 25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승점 44점으로 3위인 포항은 남은 3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5위 자리를 확보하며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다. 목표를 이뤘지만, 포항의 창끝은 오히려 시즌 막바지를 향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히나 순위 가리지 않고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1위 울산 현대(승점54)와 2위 전북 현대(승점51)의 선두권 경쟁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포항은 지난 24라운드에서 전북에 1-0 승리를 거두며 디펜딩 챔피언의 선두 추격에 제동을 걸었다. 포항 덕분에 울산은 상주 상무를 4-1로 잡고 2위 전북과의 승점 차를 3점으로 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울산이 긴장해야 할 처지가 됐다. 포항의 고춧가루가 울산에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과 ‘동해안더비’ 라이벌인 포항은 올해 대한축구협회(FA)컵까지 3번 만나 모두 고개를 숙였다. 리그에서 2전 전패를 당했고, FA컵 준결승에선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다. 그 때문에 이번 마지막 대결에 임하는 포항의 자세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앞서 전북을



잡을 것처럼 울산까지 쥐고 3위 자리를 굳히겠다 각오다. 과거 포항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울산의 발목을 잡아 온 역사도 이번 경기를 더 뜨겁게 만든다. 포항은 2013년 최종전에서 울산을 잡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2019년엔 최종전서 울산을 4-1로 대파해 전북의 역전 우승을 만든 바 있다. 분위기도 포항이 좋다. 김학박 감독이 이끄는 울림픽대표팀에 차출돼 파울루 벤투 감독의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환상적인 골을 터트린 송민규가 자신감을 얻고 포항으로 돌아왔다. 반면 울산은 A매치 기간에 이정용, 홍철이 부상으로 쓰러졌다. 포항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울산으로선 25골로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 있는 주니오의 한 방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선두 울산을 추격 중인 전북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와 홈 경기를 갖는다. 지난달 광주 원정에서 3-3으로 간신히 비긴 적이 있어 전북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동팀이 결정되는 파이널B에선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가 16일 오후 6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상승세인 인천은 잔류가 확정된 7위 강원을 잡고 또 한 번 탈락찌에 도전한다. 11위 성남FC는 홈에서 9위 FC서울과 만난다. 4연패로 추락 중인 성남은 김남일 감독이 지난 경기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해 수장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 서울도 최용수 전 감독 사퇴에 이어 김호영 감독대행까지 물러난 뒤 새 감독 선임 없이 박혁순 코치가 팀을 계속 지휘하고 있다. 기성용이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성남을 잡아와 잔류 가능성이 커진다.

벤투호, 유럽 원정 두 번째 상대 ‘카타르’

다음달 오스트리아서 15일 멕시코·17일 카타르와 유럽 원정 평가전

11월 유럽 원정길에 오르는 벤투호의 두 번째 평가전 상대는 중동의 강호 카타르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11월17일 차기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와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치른다”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11월 A매치 기간(11월9~17일)에 유럽 원정 평가전을 계획하고 상대팀으로 멕시코와 카타르를 확정했다. 벤투호와 카타르의 경기는 11월17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다. 도시 및 경기장 그리고 정확한 Kick-off 시간은 추후 확정된다. 이로써 한국은 11월15일 멕시코와 첫 경기를 치른 뒤 이를 뒤인 17일 카타르와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카타르는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국이자, 지난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챔피언이다. 9월 기준 FIFA 랭킹은 55위로 아시아 국가 중 일본(28위), 이란(30위), 한국(39위), 호주(41위) 다음이다. 상대 전적은 한국이 4승2무3패로 앞서 있으나 최근 2연패를 당했다. 지난 2017년 열린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2-3으로 졌고, 지난해 1월 아시안컵 8강 준결승에서 0-1로 패배했다. 카타르에선 하산 알하이도스, 아크람 아피프 등이 주요 선수로 꼽힌다. 벤투호에겐 카타르와 경기는 지난 경기 패배를 설욕하는 동시에 손흥민(토트넘), 이강인(발렌시아), 황희찬(라이프치히), 황의조(보르도) 등 해외리거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할 기회다.

손흥민, 몸값 다시 1000억원 돌파...EPL 공동 15위

‘손세이셔널’ 손흥민(28·토트넘)의 시장 가치가 다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축구 이적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크트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들의 활약상을 반영한 몸값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6400만 유로(약 860억원)까지 몸값이 하락했던 손흥민의 가치는 7500만 유로(약 1010억원)로 다시 급상승했다. 손흥민의 이번 몸값 상승폭(1100만 유로)은 EPL 전체 선수 중 10번째로 높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 EPL 무대를 휩쓸고



있다. 6경기에서 7골 3도움으로 순식간에 공격 포인트 10개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달 20일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한 경기 4골을 터뜨렸다.